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3주일

2021. 04. 18. (나해) 제2264호

대구주보



동천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사도 3,13-15,17-19 **화답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제2독서** 1요한 2,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
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35-48 **영성체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나의 편이신 주님, 예수님

덕수본당 주임 | 정영훈 바오로 신부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네 편이야!”

집이 편안한 이유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엄마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 편이야!”

성당이 편안한 이유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다니, 하느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시고 묻히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누가 뭐래도 하느님은 예수님 편이시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요한 2,1)

예수님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야! 그러니 괜찮아!”

주님이 우리 편이심을 기억하고 든든하고 편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 I (창세 11,27 - 25,11)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성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로마 4,1-25 참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성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창세 12,3; 22,17-18; 2사무 7,12-13 참조)을 굳게 믿어왔는데, 마태오 복음서는 첫 시작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마태 1,1)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1,2-17)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원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루카 복음서의 족보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강조하고 있다면(루카 3,23-38), 마태오 복음서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 유대인이시고, ‘다윗 임금의 자손’으로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이 뜻하는 숫자 ‘14’(יָדָוּד: 4+6+4)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십사 대(代)×3’의 도식에 따라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아브라함-다윗, 다윗-바빌론 유배, 바빌론 유배-예수님: 마태 1,17),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의 완전한 구원 섭리 속에 오신 온 세상의 임금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예수님의 조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임금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태 1,7-11).

고대인들에게 미지의 땅을 향한 여정이란 ‘기존 삶의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결단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하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수님의 또 다른 조상 노아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훼손된 하느님의 창조질서가 노아의 오롯한 순종으로 회복되었듯이, 또다시 하느님을 거슬러 교만의 바벨탑을 쌓던 전 인류가(창세 11,1-9 참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새로운 구세사의 시작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조들 모두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평안하고 안정된 일상 속에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향하여 그러나 하느님의 손끝이 향한 곳을 바라보며 늘 새롭게 떠나는 여정 속에서 비로소 체험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느님의 약속이 지연되어 극심한 신앙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시는 분을 믿었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선다면, 우리의 일상 또한 축복과 구원의 땅을 향한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궤약**



바티칸 소식

교황 트윗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두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다”

2021년 4월 6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창욱

격려를 담은 수많은 말들이 집약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윗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이탈리아 현지시간 4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교황의 트위터 계정(@pontifex)에 게시된 교황의 간결한 생각과 기도는 교황이 마음에 깊이 담아둔 말을 반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두운 시기에, 다시 시작하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초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낙담하지 말기

희망이 키워드다. 파스카에서 오는 희망은 1년 넘게 지속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의 긴 터널을 비추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대 불빛과 같다. 교황이 트위터에 올린 말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들과 방송매체들을 통해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교황이 힘있게 다뤘던 내용들을 즉시 떠올린다. 교황은 부활 메시지와 ‘로마와 온 세상에(Urbi et Orbi)’ 보내는 교황 강복에서, “백신 국제주의”를 호소했다. 이는 “백신 분배의 지연을 극복하고,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백신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나눔의 책임 의식”이다. 교황은 이보다 앞서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했던 파스카 성야 미사 강론에서 발췌한 말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영혼을 위한 명령법 동사 -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라”(ricominciare) - 를 수차례 반복했던 그 구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시대에

일상생활에서 낙담하지 말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방역 전략

교황의 트윗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멈추지 않는 순간에 도달했다. 최근 집계 따르면 코로나19 희생자들은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한다. 미국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에 앞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지만,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자국민의 90퍼센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다른 국가들에도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54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세 번째 봉쇄조치가 발효 중이다. 4월 6일 화요일부터 파리 시는 다량의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엔테크 백신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월 12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 방역 제한에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탈리아는 9개 적색 지대(적색, 오렌지색, 황색 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구역)와 11개 오렌지색 지대에서, 100일간의 백신 접종 캠페인 이후 약 350만 명이 완전히 접종을 마쳤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8일 목요일 내로 백신과 혈전으로 인한 사망 간 역학관계가 있는지 평가 중인 유럽의약품청(EMA)의 발표가 예상된다.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쿄 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성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국승(李國昇) 바오로는 충청도 음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로 이주해 살았다. 호는 ‘미암’(靡庵)이다. 장성한 뒤 충주 지역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된 바오로는, 이 새로운 종교를 철저히 배우기 위해 경기도 양근 땅에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교리를 배우고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여 즉시 교회의 본분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부모가 혼인을 시키려고 하자, 가족 때문에 본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혼인을 거부하고 동정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재촉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바오로는 혼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하였다. 또 최창현 요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등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과 함께 교리를 익혔으며,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성사도 받았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포졸들은 체포된 신자들로부터 그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곧 그를 체포하여 포도청으로 압송하였다.

포도청으로 가는 도중에도 바오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국승 바오로가 옥에 도달하였을 때, 마침 황해도 출신의 고광성이 배교하고 옥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이에 바오로는 그에게 “배교한 것은 제가 아니고, 마귀가 저를 속여 저의 입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라고 관장 앞에 나가 말하도록 권면하였으며, 고광성은 여기에서 힘을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바오로 또한 형벌과 문초를 받는 동안 여러 차례 고광성과 같은 일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국승 바오로
(1772~1801년)

하느님께서는 바오로의 진심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여러 차례 유감을 겪도록 한 뒤에야 신앙을 굳게 증거하는데 필요한 힘을 내려 주셨다. 그는 형조에서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이미 고질병과 같이 되었으니, 비록 형벌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믿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충주에서 체포되었을 때는 혹독한 형벌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석방되었지만, 이는 저의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런 다음 며칠 후 충청도 공주로 이송되어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순교 후 그의 조카들이 시신을 거두어 공주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창작성가 공모

2021. 3. 19. ~ 9. 30.

공모부문 :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 대상(1명) 500만 원

최우수상(2명) 300만 원

우수상(2명) 200만 원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aegu-archdiocese.or.kr)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말씀에 비추어 보기 3

... 예수님께서서는 창세기를 인용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마태 19:5; 참조 창세 2,24) 히브리어로 ‘결합하다’ 또는 ‘매달리다’라는 말은 깊은 조화, 육체적 내적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의미가 확장되어 하느님과의 일치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 혼인 결합은 성적 육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 주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 이는 서로 육체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어쩌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낳은 자녀는 두 사람의 ‘몸’을 물려받아 부모와 유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합되어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13항)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9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19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4일(토) 11:00 순례자성당

성소 | 피정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5.1(토) 18:00~2(일) 13: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단체: 10명 이내 / 연중가능

성독 7인 피정: 4.20(화)~22(목)

문의: (054)382-0091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일시: 독서 피정_4.22 매주 목 19:00 4주

신앙아카데미 성요셉의 해 특강_

5.15(토) 15:00 / 강사: 이재근 신부

문의: (010)6681-5185 사전예약 무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엠마오 피정

일시: 4.24(토) 10:00~25(일) 15:00

장소: 한티순례길 2구역~3구역

대상: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미혼 여성

주최: 바틀로교육센터

마감: 4.20(화)

문의: (010)9861-6691

교육 | 모집 | 기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가톨릭피부과의원 진료 안내

58년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진료분야: 습진, 무좀,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알러지, 레이저 시술 등

문의: 320-20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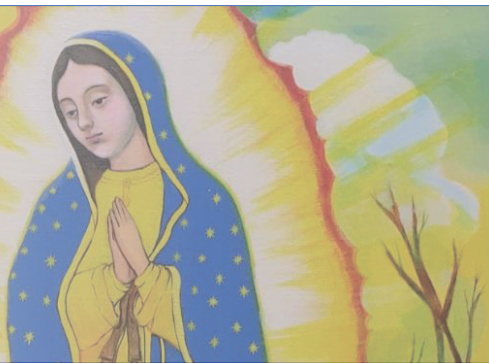
가톨릭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사랑하올 어머니 展

일시: 2021년 5월 1일(토) ~ 28일(금)

장소: 갤러리 1981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1층)

작가: 엄소영 소피아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 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가·보호대·뿔·부항기

주열가·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필필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의심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탑병원 3층
청라언덕(산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익두(아오스당),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종흥(크리산토) 몬시뇰
2015년 4월 19일
- 송덕망(스테파노) 신부
1920년 4월 22일
- 신현옥(치릴로) 신부
1988년 4월 22일

행사 | 모임

성소 주일 행사(중1~대학일반)

일시: 4.25(일) 14:00~16:00

내용: 미사(14:00)후 각 학년별,

지역별 모임 / 장소: 성모당

대상: 예비신학교 등록생(1~5대리구)

*부모님들도 미사참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4.19(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심화과정

일시: 4.27(화)~29(목) 13:3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및

소공동체 봉사자

마감: 4.21(수) / 2만원, 선착순 50명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5.3~14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접수: 5.3(월)~14(금) 17:00

전형: 6.7(월) 14:00(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 문의: (02)2258-7076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6차: 5.14(금)~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전인병원 전시회 참여작가 모집

2022년 전인병원에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님을 초대합니다.

전시기간: 한 달 / 전시비용: 무료

현수막 배너 지원

문의: 670-5882

생활성가밴드 DEUS 멤버 모집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분: 드럼, 보컬(남/여)

문의: (010)9211-8966

채용 | 안내

교구청 문화홍보국 직원 채용

자격: 30세 미만,

디자인 및 미디어 전공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4.30(금) 17:00

문의: 250-3048~9

만촌1동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고졸 이상, PC(엑셀)가능자,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4.25(일) / 문의: 754-6655

SOS프란치스카의집 직원 채용

분야: 요양보호사

서류: 이력서 접수(자사양식)

문의: SOS프란치스카의집, 986-2077

<http://sos-silver.or.kr>

감천리 묘지 분묘 신고 및 이장 안내

학산공원 개발사업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감천리묘지」

분묘 연고자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및 이장 협의 바랍니다.

문의: 대구도시공사 공원조성사업단,

350-0342~7

교구 법원 공식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성남(가타리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前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막병원 4층

발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발발친구)
수강구 황금대거리에서 롯데캐슬입장 500m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강 앞 **053-959-7175**
010-9597-7175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온창고·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헬스텍피아 보청기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착함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행,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